

진태현, '이숙캠' 하차 심경... "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책임"

등록 2026.04.29 20:48:17



[서울=뉴스시스] 진태현. (사진 = 인스타그램 캡처) 2026.04.29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 이종희 기자 = 배우 진태현이 JTBC 예능 '이혼숙려캠프' 하차 이후 심경을 전했다.

진태현은 29일 소셜미디어에 아내 박시은과 산책 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.

진태현은 "모든 것은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의 점일 뿐"이라며 "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, 모든 것은 다 제가 선택한 책임"이라고 밝혔다.

이어 "저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. 그럼 이미 다 가진 것"이라며 "겉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가짜로, 이미지로, 포장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"고 했다.

또 "사랑하는 아내와 아빠라고 불러주는 딸들, 후원하고 있는 육상 장학생 아이들,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"며 "다른 건 다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"고 했다.

마지막으로 "오늘 시간 되시면 산보하시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길 응원하겠다"고 덧붙였다.

진태현은 '이혼숙려캠프' 파일럿 방송부터 약 2년간 MC 자리를 지켰고, 최근 프로그램 재정비 과정에서 하차했다.

진태현의 후임으로 배우 이동건이 합류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